**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살면서 낙심과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불안을 느껴본 적 다 있으시지요? 물론 시험 보고나서 낙심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좀 느긋하게 인생에 대해 고민해볼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느라, 그럴 정신이 없는 것 같더군요. 학점 관리하고, 토익 점수 높이고, 각종 자격증 취득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란 걸 입증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위 친구들과 비교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낙심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설령 이 힘겨운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낙심과 불안이 아주 없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업무실적이나 승진과 관련해서, 그 불편한 감정들과 다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낙심할 때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잔존할 것입니다.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이러다 내 인생이 뒷마당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낙심과 불안을 느끼곤 할 것입니다. 중년의 아빠들은 내가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일터에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감에 어깨가 쳐질 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바쳐 평생 해왔던 일이 가치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쩌나,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서 밀려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역시,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올 수 있는 불편한 감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불안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별로 달갑지 않은 감정들과 평생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낙심은 곧 절망으로 이어지고, 절망은 우리 삶속에서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또한 살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은 죄로 이어질 수 있고, 죄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소망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불안은 신앙의 결핍에 따른 심리상태다” 즉, 낙심과 절망은 마치 불치병과도 같이 우리 삶에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조차도, 참된 삶에 이르게하는 발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 학장을 2번 역임한 구약학자 고 김정준 목사님의 책 <삶에 이르는 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목사님은 폐결핵 6기 판정을 받고 마산국립요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어, 죽음의 병동이라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펼쳐야 할 한창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며 병석에 누워있어야 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그는 낙심했을 것이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비 한 마리가 병실에 들어왔다가 출구를 못 찾고 헤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는 가누기힘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나비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려 다가가면 갈수록, 나비는 더 거칠게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한 가지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는데, 오히려 내가 저 나비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그의 병은 기적적으로 치유됩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죽음의 병동을 나오게 됩니다. 이후 그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가 병실에서 수도 없이 읽어 이미 다 외워버린 시편에 관한 연구로 그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또한 후학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을 살다가, 그는 67세를 일기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질병과, 그로 인한 낙심과 불안의 상황은, 그의 신앙 안에서, 오히려 그를 진정한 삶에 이르게 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이처럼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 처한 한 신앙인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 있던 상황을 언급합니다.

말년에 다윗은 참으로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면서, 결국 다윗은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가는 길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처럼 낙심되고 원통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의 원통함을 다른 사람에게 푸는 대신,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그런 신세에 처한 것을 보니 하나님은 네게서 등을 돌리셨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내면의 목소리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나를 잊으시고 이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내가 싫어지셔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 49:14-17).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8-10).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눅 12:6-7).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2-39).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구절들을 더 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저는 얼마든지 더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싫어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싫어 버리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 51:13)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 1:2-3).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이 나를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이스라엘 북쪽의 험한 땅을 지나면서 다윗은 심히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냅니다. 파도처럼 요란스럽게 내려오는 요단강 급류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다시금 생각이 미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와 함께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해냅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기억해냅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가 비록 비참한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의 옆에 생사를 같이하며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사람을 향해 복수심과 증오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갈급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밤마다 그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승화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42편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맨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4절에서 그는 그때 일을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잠시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이 새로운 찬송은, 그가 이제껏 드렸던 그 어떤 찬송보다 진실하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자꾸 보다보니 저도 보는 눈이 생겨서, 진짜 노래 잘 하는 가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노래 잘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을 주는 가수는 스킬만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소리에 자기만의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더군요. 그의 노래에 자기만의 무언가를 녹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찾아온 여러 상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물론 그 중에는 낙심과 불안의 상황도 포함될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외의 것은 무가치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며 먼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지금 내게 허락되는 모든 것은 곧 빛을 보게 될 다이아몬드 원석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베풀어주고 계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외의 다른 것들은 허상이고, 그것이 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소중히 붙들며 좇아야 할 것을,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될 지도 모릅니다. 낙심과 불안의 구름이 살짝 거치고 은혜의 빛이 잠시 비쳐지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삶을 향한 전환점과 도약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다윗은 8절 하반절에서 결심합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 있냐고 푸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당신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내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당신이 조금은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든든한 반석이라고 고백하기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져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낙심하다’로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 원뜻은 “숙이다”입니다. 즉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는 말은 “네가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느냐”는 말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한 사람은 그 슬픔의 무게로 인해 고개가 푹 숙여지기 쉽습니다. 또한 여기서 “불안해 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거나 가라앉는 파도의 모습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불안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성난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요동하기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 있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슬픔으로 숙여진 고개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흔들리며 요동하는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소망의 닻을 하나님을 향해 내려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침체와 치유>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슬픔으로 숙여진 고개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흔들리며 요동하는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소망을 닻을 하나님을 향해 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잠간 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최선의 환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고난 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